

2/8/15

설교 제목: 교회란 무엇인가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 16:13-19

(마 16: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절관주** 막 8:27, 눅 9:18

(마 16: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절관주** 마 14:2, 눅 9:8

(마 16: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역사상 요즘처럼 한국의 교회가 세상의 못매를 맞고,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때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즉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나아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구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 기관?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 2 세들에게 교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키고 방과 후 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들을 맡아 주는 곳? Summer camp 를 하는 곳?

아니면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한국 사람끼리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마음껏 한국 말하고 한국 음식 먹으며 회포를 푸는 곳?

모두 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이기에 교회관이 확실히 정립된 분이 아니면 선뜻 뭐라 대답하시기가 망설여질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조직들은 다 주목적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성과 인성을 함양한 사회인들을 길러내기 위해, 학원은 학생들의 학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병원은 병들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회사는 비즈니스를 통해 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내기 위해, 자선 기관은 가난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 등등 말입니다.

물론 이들 조직들은 각각 세워진 주목적 이외에도 다른 일까지도 부수적으로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부수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세워진 주목적을 잊거나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본연의 업무인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올인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고 보람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은 이미 병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병원은 이미 병원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들, 세상을 위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본래의 목적 즉 교회 본연의 주 임무를 잊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교회는 무엇이나? 교회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나?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원론적인 것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멋진 강대상, 성능 좋은 마이크, 화려한 장식,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 등의 예배 시설이 갖추어진 곳, 즉 건물을 가르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목사님들 이름을 붙여 조용기 목사님 교회, 김선도 목사님 교회, 광선희 목사님 교회, 옥한음 목사님 교회, 김장환 목사님 교회..... 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편리하고 알아 듣기 쉽게 부르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이해됩니다만 말이 씨가 된다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아니 우려 된다고보다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이 피 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건물을 사신 것이란 말입니까?

왜요? 건물 값이 오를까봐 투자 하셨나요?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녹아 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고 계시는 예수님이 왜 건물에 투자를 하십니까?

또 '치게 하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입니까?

건물을 치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냉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십니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가톨릭에서 교황권의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석하고 베드로를 제 1 대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 교황을 음부의 권세도 꿈쩍하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까지 가진 자로 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황을 “교황성하”라고 부릅니다. 폐하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전하도 아니고 “성하”입니다. 존칭 중에 극존칭을 붙인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지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여성 명사 ‘페트라’입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명사의 ‘성’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로 쓰여졌고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당연히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것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이 반석은 베드로와 베드로가 한 고백을 모두 받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적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이 교회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믿는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반석이 베드로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면 바로 다음 23 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 16: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 16: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 16: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22 절에 '항변하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실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앞날을 책임져 주어야 할 스승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주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더러 사단이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같이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느냐?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때 예수님께 '복이 있도다.'라는 칭찬을 들었고, 어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는지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는 "사단아"라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께 칭찬 받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입니다."라는 참 복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모임을 위한 장소입니다. 건물은 모임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2.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왕따 당한 형제 자매들이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 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알콜 중독자, 신용 불량자,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3.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열한 사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곧 교회는 전세계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하면 항상 잊어 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구 선수가 테니스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구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하고 다른 것들만을 잘한다면 그는 더 이상 야구 선수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들은 열심을 내어 멋들어지게 잘하는데 영혼 구원하는 주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예배 의식도 아니고, 웅장한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들이 바르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도구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한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이곳에 당신이 진정 원하시는, 당신이 진정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당신의 피로 갚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 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